

광주시·전남도 재정자립도 갈수록 하락

(39%) (14.5%)

사회복지비 급증 40% 육박

직원 임금 자체 해결 어려움

행정부 '자체 통합재정개요'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은 상태에서 사회복지비가 급증하면서 재정수지도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재정자립도는 14.5%(22개 시·군 포함 17.8%)로, 지난 2000년(16.5%)에서 2%p 낮아졌다. 22개 시·군 포함 재정 수입은 11조1376억원이었고, 재정지출은 11조3763억원으로 지출이 수입을 2300억여원 초과했다. 재정수지가 적자라는 의미다. 지출 증가는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때문이었다. 올해 예산상 사회복지비는 1조5906억원으로, 전체 전남도 자체 예산의 29.1%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 1조4460억원에 비해 15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59.5%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40.1%, 2014년 36.8%, 2015년 39%로 40%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반면 시 총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복지비는 2011년 30.4%에서 연평균 1.6%씩 증가해 2015년에는 무려 36.2%에 달한다. 시는 현재 인건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2~3년 후 사회복지비가 40%대에 달할 경우 재정 운영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동구와 남구는 과도한 사회복지비 탓에 이미 직원들의 임금을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돼 5개구 모

두 재정 운용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도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됐으며, 열 곳 중 세 곳은 여전히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낼 정도로 재정이 취약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입은 156조9916억원으로 작년(당초 예산)보다 5.4%가 증가하고, 통합재정지출은 168조1012억원으로 6.0%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통합재정지출이 통합재정수입보다 11조1096억원이 많아, 통합재정수지는 그만큼 적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통합재

정수입 전망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해 전망치보다 8조원 이상 늘었지만, 통합재정지출 전망 역시 복지비 부담 증가 등에 따라 9조원 넘게 불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0% 가까이 늘어나 지자체 재정전망에 그늘을 드리웠다.

행정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상보육' 등 복지제도개편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규모가 2013년 18조4000억원에서 올해 28조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반면 자치단체의 세입증가는 지출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을 예산규모로 나는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44.8%에 이어 올해도 45.1%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지방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13년 51.1%로 지속 하락했고, 지난해 50% 아래로 떨어졌다. 특별시와 광역시, 세종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61.2%이지만 전국 군 지역에서는 11.6%로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30%가 넘는 74곳은 올해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대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채용설명회장 가득 메운 학생들

29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 광주·전남혁신도시 합동채용설명회를 찾은 학생들과 구직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채용 기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새정치 원내대표 경선 5명 후보 등록

김동철 의원 등...내달 7일 선출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부터 3일간 후보 신청을 받은 결과 최재성 김동철 설훈 조정식 이종걸(기호순) 의원 등 5명이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후보 등록 첫날에는 조 의원이, 28일에는 이 의원이 등록한 데 이어 이날 마감을 앞두고 나머지 세 후보가 잇따라 경쟁대열에 가세했다.

최 의원은 개혁성향의 3선 의원으로

정세균계 인사로 분류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김 의원(3선)은 출마자 중 유일한 호남 의원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설 의원(3선)은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인사이며, 사무총장을 역임한 조 의원(3선)은 순학규계 인사로 분류된다.

3번째 원내대표 도전에 나선 이 의원은 출마자 중 유일한 4선 의원이다.

새정치연합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의총을 열고 신입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모바일게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전남 어린이 국악체험 뮤지컬 육성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정

광주의 모바일 게임(이야기 배달부 동개비)과 전남의 어린이 국악체험 뮤지컬 등이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로 집중 육성된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한국진)은 광주·전남지역 4개 사업을 포함한 '2015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한국진이 올해 첫 시행하는 대표적인 지역사업이다.

광주의 해당 사업은 양림동의 총건 전 통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애니메이션 '이야기 배달부 동개비', 의병장 김덕령 장군과 권율장군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게임물 '빛고를 영웅전'이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남도 음식을 상품화하는 '올 댓 레시피', 어린이 국악체험 뮤지컬 '일씨구나 별떡, 와와

와와'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한다. '일씨구나 별떡'은 화순 운주사 천불전탑 전설과 애니메이션, 국악을 접목한 어린이 뮤지컬이다.

한국진은 2억원에서 5억원 안팎의 문화콘텐츠 개발비를 광주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지원한다. 문화콘텐츠는 게임, 만화, 영화, 음악 등 각 문화영역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말한다.

한국진은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콘텐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제조업 등 연계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콘텐츠 투자유치와 지역 콘텐츠의 해외진출 위한 마켓 참가 등을 돕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은 "지역대표 문화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협력성장 엔진”

허창수 GS회장, 계열사 경영진 이끌고 여수 방문

허창수 GS 회장(사진)이 2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여수를 찾아 오는 6월 초순 문을 여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허 회장은 회장단회의를 여수에서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전남도와 GS그룹에 따르면 허 회장은 전남 계열사 최고경영진을 이끌고 여수시 덕충동에 들어서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 종합적인 사업 계획과 준비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방문에는 GS칼텍스 허진수 부회장, GS에너지 나완배 부회장, GS건설 허

명수 부회장, GS홀소프 허태수 부회장, (주)GS 정택근 사장, GS칼텍스 김병열 사장, GS리테일 허연수 사장 등이 동행했다.

허 회장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창조경제 확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GS와 지역의 사업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혁신 거점이자 협력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GS가 전남도와 함께 구축하는 여수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창업과 사업화를 종합적



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법인화 및 센터장 선임을 마치고 GS의 역량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해 협의 중이다. 전남도는 30일 청와대를 방문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및 기능, 컨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GS 측과는 투자 금액을 놓고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 회장과 창조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허 회장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GS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가 필요하

다고 강조해 왔다.

허 회장은 지난해 9월 GS 최고경영자 전략회의에서 “우리 GS만 성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혁신과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와 나누면서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히 GS가 연계하게 될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계열사가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체화하고 상품 개발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힘써달라”고 계열사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허 회장은 2013년 5월 GS 벨류 크리에이션 포럼에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제품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기술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창조경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암에 전문비행훈련센터 들어선다

전남도, 신항에어 등과 협약

영암에 전문비행훈련센터가 들어서고 소형항공기 운항으로 섬·해양 항공 관광이 선보인다.

전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주)신항에어 등 8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909억원(고용인원 398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주)신항에어(대표 김원호)는 343억원을 투자해 영암군 미암면에 있는 비행장에 전문 비행훈련센터를 구축하고, 남해안 섬·해양 항공관광 상품을 개발해 운영한다. 신항에어는 이미 소형항공기 8대를 도입했고,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한 소형항공사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선일바이오(주)(선일그룹 회장 정우섭), 화순 생물의약품산업에 65억원을 투자하는 (주)바이오에프디엔씨(대표 정대현)는 기능성 화장품 및 의약품의 원료인 베타글루칸, 성장인자류, 펩타이드류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

(주)정광(대표 광중현)은 무안 청계농공단지 102억원을 투자해 선박엔진 소재 금속단조품을, (주)제이에스산업(대표 이상운)은 동함평산단에 66억원을 투자해 재생타이어를 생산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창사 63주년

제17회 **담양** 세계를 향한 대숲의 깊은 소리를 들어보세요!

대숲의 속삭임, 세계와 어울림!

2015 **5.1**금 - **5.5**화 5일간
죽녹원, 관방제림 일원

| 주최·주관 | 담양군 ·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남도 | 한국관광공사

The 17th Damyang Bamboo Festival